

제 10 호

연중 제 5 주일  
(공현 후 제5주일)

1973. 2. 4

#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강론】

## 신부는 누가 만들었기에



오 기 순 신부

신부 한분을 만들기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대 신학교에 보내어 철학 3년 신학 4년, 7년간을 공부시켜야 해요. 이렇게 공부시키려면 막대한 경비가 들어요. 현재 우리 교구의 40명 신부를 누가 7년 혹은 10년 공부를 시켜 신부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구미 각국에 소위 은인들이 막대한 경비로 신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결코 억만장자도 아니요. 물론 갑부도 아니예요. 농부, 직공, 노동자, 과부, 가난뱅이들이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낳은 아들을 신부를 못만든 것을 한탄하고 남의 아들이라도 신부를 만들겠다는 가혹한 뜻에서 자기들의 가난한 살림을 절약해서 이렇게 많은 신부를 만든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구의 신부들 중에는 우리 교우들이 만든 분은 한 분도 안계세요. 다 외국 가난한 교우들이 만들었어요.

신부도 사람인지라 늙고 병들고 죽어서 신부 수가 차츰 줄어들어 현재 우리 교구에는 신부없는 본당이 네 군데나 되고 앞으로 빈 본당이 자꾸 늘어나겠지요. 신부없는 본당 교우들은 신부 안준다고 교구에 불평이 대단하고 원망도 어지간합니다. 신부를 만드는데 단돈 한푼도 안내고 불평과 원망만 하니 이는 너무하지 않아요. 신부가 있는 본당 교우들은 설마 우리 본당에야 신부가 없으랴 생각하고 무사태평하니 그런 교우들의 얼굴은 첩판같이 두껍고 심장은 무쇠같군요. 우리 교구에는 다행히도 60여명의 대신학생이 있어요. 외국에 은인들이 다 없어져 그들을 공부시키려면 매년 7백만원 이상의 경비가 듭니다. 교구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사목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외국에 가난한 교우들이 우리 성직자를 만들어 주었지만 인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 성직자를 만들자고 일어섰어요. 우리 모든 교우는 성직자 양성기금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신부 만드는데 돈한 푼도 안내고는 신부달라고 할 염치도 없구, 자기 영혼을 돌볼 신부를 안만들고 내가 교우라고 내가 구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천만에요. 내가 교우라고 이마에 성호를 그을 자격도 없어요. 내가 구령을 하리라는 가망도 없어요. 교우 각자는 자기 구령을 위해서라도 있는 힘을 다합시다.

(복자성당 주임신부)

### ※ 이 주일의 미사 ※

□**임당송** 어서와 엎드려서 조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앞에 무릎을 꿇세,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독서** (고린토전서 9: 16-19, 22-23, 성서 p 385)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총계송** 야훼님 찬양하라, 노래도 좋을시고. 하느님 노래하라, 찬미도 고을시고. 주께서 에루살렘 이룩하시다. 흠어졌던 이스라엘 모아주시다. ◎야훼님 찬양하라 부서진 마음들을 낫게 하시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몸소 우리의 허약함 맡아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지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 29-39, 성서 p. 76)  
병고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저희로 하여금 대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저희가 범하는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 보다는 뉘우침을 주시어 실망하지 않고 사실을 고백하여 하느님의 용서하심을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

3. 주여,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저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소서. ◎

4. 주여, 저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

5.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어 당신의 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께 감사하게 하소서. ◎

**맺음 기도** 주여,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머덕을 항상 잃지 않게 도와주소서. 특별히 그분들의 영신 사정에 관심을 가져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말게 하소서. 우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 받을르니. 행복하여라,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만족하리니.

### ※ 이 주간의 성경 ※

- 5(월)독서(창세기 1: 1-19)  
복음(마르코 6: 53-56, 성서 p. 90)
- 6(화)독서(창세기 1: 20-2: 4)  
복음(마르코 7: 1-13, 성서 p. 91)
- 7(수)독서(창세기 2: 4-9, 5-17)  
복음(마르코 7: 14-23, 성서 p. 91)
- 8(목)독서(창세기 2: 18-25)  
복음(마르코 7: 24-30, 성서 p. 92)
- 9(금)독서(창세기 3: 1-8)  
복음(마르코 7: 31-37, 성서 p. 92)
- 10(토)독서(창세기 3: 9-24)  
복음(마르코 8: 1-10, 성서 p. 93)

□ 교리교실 □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박진량 신부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번씩 「주의 기도」를 바치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다. 복음 성경에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당신의 소명의식에 대한 유혹을 받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사업을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서 고통 받는 하느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부귀영화와 권력등의 여러가지 인간적인 특권을 함께 누리는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려는 데 대한 유혹을 느끼셨다. 이런 유혹은 그의 공생활 과정에도 나타난다.

예수께서 당신 수난을 첫번째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필적 뛰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거라. 너는 내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셨다(마태 16/22-23). 베드로는 자기 소승 예수님을 매우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뜻으로 수난을 말했으나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당신 소명과 배치되는 사탄의 유혹을 느끼신 것이다. 즉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민중의 추앙속에서 수난도 없이 죽지도 않고 승리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이미지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반응을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유혹에 대한 투쟁은 갓세마니의 기도에서 결정적으로 판가름이 난다. 「예수께서 공포와 번민에 싸여 “지금은 내마음이 죽도록 괴롭소스……”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만 있으면 그 수난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의 뜻대로 하소서”」(마르코 14/33-36)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니 때문에 구원 사업을 힘 안들이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 죽어야 하는 당신 소명에 대한 유혹을 처절하리 만큼 노력하여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셨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몰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시지는 않았읍니다」(헤브 4/15)

□ 양지쪽 □



계 파 동

어떤 친구를 만나 희한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두어달 전에 얻은 직장의 재미가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애를 써서 얻어준 그 직장을 어떤 핑계로 그리도 쉽사리 던져 버렸는가 매우 궁금해 하였던니 힘없이 내뱉는 대답이 걸작이다.

「부인이 계 파동으로 자취를 감추어서 그만 둘 수 밖에 없다」라고 거짓 이유를 대어서 소개해준 친구나, 당사자나, 고용주 모두가 서로 무난하게(?) 그만 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핑계치고는 너무나 영터리 없는 거짓이요 그 친구 부인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어서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회사가 시덥지 않아서 잠깐 부인의 명예를 실례했다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가끔 계파동의 파문이 너무나 크게 인다. 어떤 때는 한 도시의 경제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수마저 없지 않다. 그런가 하면 그 여파로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죄없는 어린이들도 많이 나오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어도 모든 것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이다.

인간의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더 넉넉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것을 찾도록 반짝거리게 준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저축할 수 있는 머리를 열어 주었고, 좀 두리쉴을 모우던 주부들의 계 조직을 통해서 학자금, 농사자금, 혼수비용, 장례비용을 원활하게 해주는가 하면 나아가서는 커다란 저택까지도 마련해 주게 된다. 이 맛에 계가 좋았다. 하지만, 순풍에 돛을 달면야 오죽 좋으려마는 가끔 가끔 터지는 바람들이 문제다. 끝치를 싸매고 들어 누어야 하는가 하면 오밤중에 줄행랑을 놓아야 하는 그 바람들이 문제다.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더니, 돈이끼 어서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는 성싶다. 서로의 이해 관계가 얽히니 그러는 모양이다.

마침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이 교구의 역점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 사업에 당신도 한 몫을 담당하고 싶지 않으신지요? 어려운 형편이라면 서로 서로 계조직을 통해서 이 운동에 발벗고 참여해 봅시다. 적어도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이 계조직만큼은 바람 안타는 일이니까.

(갑)

※ 개업안내 ※

중앙 가방센터

〈여행구 핸드백 학생가방〉 도산매

교우에게 특별 할인

중앙성당 상가 노벨제과 옆  
방벨라도 (용석)

최 씨 관 집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추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 6691 교환85번)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 참 여

북자 성당 김 중 태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어수선한 1972년을 보내고 다시 해를 맞이한다. 이웃간의, 동족간의, 국제간의 이기주의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높은 의자(지위위세)가 양심을 마비시킬 때 억눌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은 피로워 한다.

모든 교회의 간행물들이 이구동성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사회정의의 구현에 앞장서자고 호소하고 있다. 너무도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정의는 대체 무엇이고 평화는 무엇이며 복음적 생활화는 또 무엇일까?

평화란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갖가지 사회 계층에 전쟁은 물론 착취와 약탈과 억눌림이 없어야 비로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정의란 어떤 사물이고 양심의 소리대로만 판단하라는 말일 것이고, 생활화란 백 번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똑바로 행하면서 살아보자는 뜻이리라. 바오로 종도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지식에 통달하고 또한 산을 옮길만한 완전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찌하고 있는가? 불의와 부정을 보고도 주둥이를

쥐어박힐까 두려워 바른말 못하며 양심의 소리에는 고개를 돌리고 협박과 기만에 속고 더러는 부정과 야합하고 권모술수를 밥먹듯하고, 온갖 이웃의 불행한 일들을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던가? 인간 사회가 문명을 낳은 것인데 도리어 이 모든 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속박하고 제압할 때 우리는 우수에 잠기지 않을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동반하는게 아니고 수단이 목적을 혹사할 때 주객전도의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 제도적 결합에 갇힌 무리들이 지조가 없이 뿌리도 잃은 채 이리 끄덕 저리 끄덕 하면서 썩은 물고기떼처럼 떠내려 가는 것이나 아니었는지?

우리들 신앙인의 목표는 참 인간 질서의 회복에 있다 하느님의 왕국 건설을 저해하는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율해에는 한걸음 더 목표로 다가서자.

의를 위하여 환난을 받는자는 행복하다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몸같이 하라고 하신 예수님! 당신 몸뚱이를 인류에게 제물로 내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최초의 스승이요 최후의 스승인 예수님! 우리들도 당신 사업에 동참케 하소서.

주 보 보내기 독지가 모집 (연락처 ③3998)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③3498)

- 4(월) 지성인 교리 교실(제2기-박신부 지도)
- 5(화) 젊은이의 광장
- 7(목) 외국 문화 교실(불어-배신부 지도)
- 8(금) 지성인 교리 교실(제1기-문신부 지도)

### \* 젊은이의 광장

- 성경은 참으로 기쁜 소식인가?  
(오후 8:00-8:40 유장훈 신부 지도)
- 건전한 노래와 즐거운 게임으로 젊음을 보람차게  
(오후 8:50-9:30 배주 화요일-레크레이션 교실)
- 요일이 변경되었사오니 레크레이션 회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신년※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⑥6094

※근하 신년※

## 동남 샵 TV 및 스토-브 전주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②5504  
여요셉(운창)

(4)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준

- 1. 예비신자 교리 개강 (2월4일 부터, 등록 바람)
일반-주일 11시, 화, 목 10시, 오후 8시
노인-주일 11시, 화 10시
2. 성심부녀 월례회 2월9일(금) 어머니 미사후 사제관에서
3. 사도회 월례회 연기 2월 11일로
4. 주일학교 졸업미사 다음주일 공식미사에 졸업식과 수료식을 거행함
□ 지난 주일 봉헌금(30,042원)
구라 주일 특별성금(7,63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 1.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월례회 연기(3월)
2. 애령회 월례회 (2월7일(수)12시, 소모니카 부회장)
3. 본당 교우 피정 (2월26-28일)
①장소: 광주 피정의 집
②준비물: 미사경본, 묵주, 기도서, 세면도구
③등록비: 3,500원
④인원: 40명
⑤등록: 2월18일 까지 본당 사무실에
4. 신용조합 월례회 (2월 11일 공식미사 후)
5. 축 결혼 (2월 11일 12시, 전동)
윤장근(시몬)군과 이시재(요안나)양
□ 지난 주일 봉헌금(10,070원)
학생회 봉헌금(1,015원)
구라주일 특별성금(5,016원) 감사합니다.

(떡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피정회원 모집
①일시: 2월 21-23일 (2박 3일)
②장소: 광주 피정 센터
③경비: 3,500원(교통비 식비 포함-피정후 6개월분 남)
④주최: 푸른 양치회
⑤후원: 사도회
피정후 특별 모임을 조직할 예정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람
2. 다함께 노래부르기 토요일 미사후
□ 지난 주일 봉헌금 (4,506원)
구라 주일 특별성금 (4,20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월례회연기 2월 11일로
2. 유아세례 두째주 화요일 10시
3. 사제양성 후원 사업에 협조합시다
□ 지난 주일 봉헌금 9,420원
구라 주일 특별성금 3,445원
지난 주간 성미 (3말 5되) 누계 85말 6되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김육낙

- 1. 사도회 월례회 2월 11일 오후 8시
2. 자모회 월례회 2월 4일 공식미사후
3. 예비신자 교리 실시 2월11일 부터 매주 공식 미사후
□ 구라 주일 특별성금 10,470원
지난 주간 교무금 11,516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사도회 월례회 2월4일 저녁미사 후
2. 교무금 수입을 마무리 합니다.
아직도 교무금 수입을 못하신 교형들은 빠른 시일안에 배부를 지읍니다.
3. 사제양성 후원 사업에 참여합시다.
「어머니 교회」의 긍지를 살려 교구내의 모범 본당이 되는일에 앞장 섭시다.
4. 후기 고교 수험생을 위한 미사
2월 6일 6시에 봉헌 합니다.
5. 성심 유치원 1973학년도 원아모집
①유치원에 문의 바람(전화 8347)
②원서 마감(2월 28일)
6. 새신부 미사 오늘밤 7시 미사는 새로 서품되신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하신다고 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27,936원)
구라 주일 특별성금 (6,667원)
지난 주간 성미(1말, 현금 850원)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복자 누계 175,000원
장동주 (25,000원)
전동 누계 350,000원
중앙 누계 2,007,400원
하늘의 문 P 2만원
진북 2구 김영진(3만원) 김은복 서정태 오종문 이덕순 이옥련 정복주 홍양배(각 5천원)
태평 1가 1구 진병기(2만원) 배상철(1만5천원) 김순자 김은임 김종호 소남섭 엄관섭 이봉우 이성우 이중규 최복래(각1만원) 고윤범 임춘희(각7천2백원) 강덕희 김수암 김영술 문명자 백인순 윤관용 이원오 전영택 정순성(각5천원)
경원 이종철(5만원) 김진수(2만원) 김계영 김일녀

양승진 허용자(각1만복원) 김유순 이옥복 정우덕(각5천원)

태평 2가 김성원(2만원) 서노 2구 김태일(5천원)
인후 박경울(5천원) 강복래 강수원 국철환 김치복 문승남 박공순 박순자 서순래 설재숙 이덕구 이쌍래 이옥자 이해룡 정점순 최성환(각2천5백원)
기타 엄기섭 엄익돈(각1만원)

□ 소식 □
교구 신부 인사 이등
김치삼 신부~휴양(주현동 주임)
오현택 신부~주현동 겸임(창인동 주임)
양재철 신부~창인동 보좌(새 신부)